

5·18로 '연결'되는 광주청년들, 오월로 만난다

16~24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서 '비연결, 연결, 재연결' 전시 문화기획자·사진작가 등 평범한 청년들이 스스로 말하는 5·18 의미 23일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으로 오월 재발견

지난해 '오월 담론장'을 열었던 광주 청년들이 올해에도 5·18로 '연결'되는 저마다의 '오월'로 다시 만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청년들의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담은 '비연결, 연결, 재연결' 전시가 16일부터 24일까지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 누구나 5·18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도 연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시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인 최진웅 사진작가와 김꽃비 문화기획자가 손을 맞잡았다. 전시는 5·18이 현재 광주 청년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이며, 오월을 통해 어떻게 다시 세상과 재연결(계승)되는지에 대해 다룬 '연결을 향한 기록의 여정'이다.

전시는 '연결'을 상징하는 색색의 필살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청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들이 특히 인상 깊

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최진웅 사진작가는 5·18의 미래세대인 더 많은 청년들이 오월을 마주하고 재연결되길 바란다. 작가의 마음이 투영된 작품의 인물들은 자신의 오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품을 보는 관객들도 하여금 스스로 '내게 5·18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민주·인권·평화'라는 5·18 가치에 공감하되 저마다의 삶에서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5·18의 현재적 가치를 탐구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5·18을 넘어, 송고와 부재감 사이의 의무를 넘어 광주에서 살아가고, 일상으로 금남로를 거닐고, 직장 학교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광주 청년들이 마주하는 오월에 주목한다. 연결되지 않던 청년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5·18과 연결되며, 재연결을 통해 흐릿하나 선명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도 마련된다. 23일 오후 7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연결된 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월광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광주 청년들이 생각하는 5·18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5·18로 연결된 '나'의 재발견을 통해 '오월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현재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5·18에서 잘 들리지 않았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목함과 동시에 5·18의 세대 확장에 기여한다.

김꽃비 문화기획자를 좌장으로 최진웅 사진작가, 김혜선 5·18기념재단 글로벌센터, 박제상 마을청년활동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인 '에브리씽 데이 올댓원스'를 기획해 광주 청년들의 오월 담론장을 열었다. 이들은 5·18을 오늘날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들이인 혐오와 차별 지양, 공정사회, 다양성 존중과 연대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고, 오월정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발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들은 앞으로도 광주 청년들이 5·18로 만나고 연결되는 기록에 대한 여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담양의 여름, 클래식으로 물들다” 담양군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월 19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

담양군은 오는 19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담양의 여름, 클래식으로 물들다' 정기연주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사)누림(이사장 정세기)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문화재단, 담양군이 후원하는 '2025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주민 참여형 무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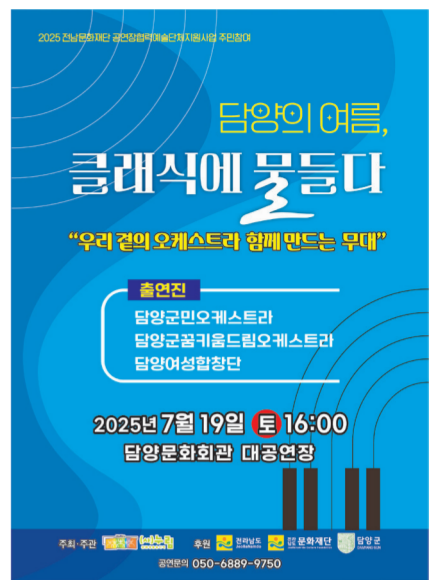
무대의 주인공인 '담양군민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지역 주민 중심의 오케스트라다.

단원 30여 명이 매주 토요일 정기 연습을 이어가며, 음악을 통해 세대와 이웃을 잇는 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정기연주회인 이번 무대에는 담양군공기울드림오케스트라(청소년)와 담양여성합창단(성인)이 함께하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합쳐 총 10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합동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문어의 꿈', '인생의 회전목마', '연재나 몇 번이라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부터, '걱정말아요 그대',



'유 레이스 미 업', '나의 옛날이야기', '섬집아기', '인생' 등 성인 관객에게 익숙한 노래들이 연주와 합창으로 무대를 채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라며 "이번 공연이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음악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을 받는다. 담양/이종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주지 대진스님)는 오는 8월 29~30일 이틀간 지리산 천은사에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It's not your fault'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첫날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천은사 저수지에 마련된 수변무대에서 싱어송라이터의 감성과 기타 트리오의 밀도 있는 밴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현웅선 밴드'와 채소밭 밴드라는 이름처럼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브라질리언 재즈를 전하는 '반다지 오르타'가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시작을 알린다.

30일 둘째날은 소나무림에 펼쳐지는 천은사 일주문 야외무대로 장소를 옮겨 자유롭게 세련된 감각으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월드 클래스 가수이자 재즈피아니스트인 '마리아 김 켈렛'과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개최

지리산 천은사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밴드 재즈 축제

라틴 퍼커션의 감각적인 점목으로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이규재 재즈 컴플리케이션'이 이끈 가을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축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지리산 천년고찰인 천은사는 2021년부터 클래식, 가요, EDM,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를 열며 지리산의 대표적인 문화사찰로 거듭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매년 두차례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통해 지리산의 찾는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슬로건인

'It's not your fault(네 잘못이 아니야)'는 영화 '굿윌헌팅(Good Will Hunting, 1998년)'의 명대사로 천은사 주지 대진스님은 "요즘 시대상황과 맞물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내게 다가올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런 대중들에게 "It's not your fault"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다.

소나무 숲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과 운율이 아름다운 천은사 일원에서 펼쳐지는 재즈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를 내려놓기를 바란다.

구례/한정호 기자



고흥군,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정착 이야기 공모

'고흥에서 꽃피운 제2의 인생' 우수사례 발굴... 총 17명 시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5 고흥이어서 행복한 사람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공감과 동기를 제공하고, 고흥군 정착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귀농·귀촌 정착 우수사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소득 창출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 사례 ▲문화적 융합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2025년 7월 11일(금)부터 9월 9일(화)까지 약 2개월간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고흥군에 귀농·귀촌한 사람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이메일(bq00772@korea.kr) 또는 우편(고흥군청 인구정책실)으로 공모 신청서, 참가서약서, A4 10~15페이지 분량의 정착수기 원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차·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우수상(2명, 각 50만 원) ▲장려상(4명, 각 30만 원) ▲입선(10명, 각 3만 원) 등 총 17명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정착우수사례 수기집'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도시민들이 고흥으로의 새로운 삶을 꿈꿀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여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